

결혼 비용, 예식 시기 따라 최대 325만원 차이

성수기 평균 2156만원으로 비수기보다 202만원 비싸... ‘드메’ 계약도 1년여 만에 1.7배 증가

예식 시기에 따라 결혼 비용이 최대 325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식이 집중되는 성수기를 피해 예식 시기와 서비스 구성을 조정할 경우 결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의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 등 약 5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혼서비스 계약금액 11만29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결혼 비용은 결혼식장 비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포함한 결혼준비대행 패키지 비용을 합산해 산출했다. 분석 결과 예식이 집중되는 성수기인 3~6월과 9~12월의 평균 결혼 비

용은 2,156만 원으로, 비수기인 1·2·7·8월의 1,954만 원보다 202만 원 높았다. 월별로는 4월이 2,238만 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1월이 1,91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두 달 사이에는 325만 원, 비율로는 17.0%의 차이가 발생했다. 예식 계약이 가장 많이 이뤄진 달은 5월로 전체 계약의 12.2%를 차지했다. 이어 6월 11.3%, 4월 10.3% 등의 순이었다. 결혼식장 비용에서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뚜렷했다. 성수기 결혼식장 비용 중간가격은 1,610만 원으로 비수기 1,250만 원보다 360만 원, 28.8%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식대가 성수기 1,200만 원, 비수기 980만 원으로 220만 원 차

이가 났으며, 대관료는 성수기 350만 원, 비수기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차이를 보였다. 최근에는 스튜디오 촬영을 생략하고 드레스와 메이크업만 계약하는 이른바 ‘드메’ 방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 패키지 가운데 드메 계약 비중은 2025년 4월 11.0%에서 2026년 6월 19.2%로 증가했다. 15개월 사이 약 1.7배 늘어난 것이다. 전체 계약 기준 드메 패키지 중간가격은 160만 원으로, 스튜디오까지 포함한 드메 패키지 중간가격 292만 원보다 132만 원, 45.2% 저렴했다. 다만 드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드메 패키지 중간가격은 2025년 4월 140만 원

에서 2026년 6월 180만 원으로 40만 원, 28.6% 상승했다. 이는 최근 셀프 촬영을 선호하거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예비부부의 실속형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결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식 시기뿐 아니라 예식 요일과 시간, 드메 구성, 촬영 방식 등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전에는 ‘참가격’ 누리집에서 결혼식장과 드메 가격정보를 확인하고 견적 산출 및 가격 비교 등을 활용해 예산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2일 전북지리산낙농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현장 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

낙농농가 축산현장 종합컨설팅 실시

전북농협·국립축산과학원, 현장 애로 해결 나서

전북농협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낙농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조용민)은 12일 전북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 김재욱) 본점 3층 대강당에서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현장 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농협과 농촌진흥청 간 업무협력에 따른 축산현장 컨설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국립축산과학원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은 낙농농가 5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 개량, 번식, 사양, 환경, 질

병, 조사료 등 축산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과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농가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최신 축산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종합컨설팅을 통해 낙농농가들은 수요자 중심의 축산 신기술을 습득하고 사양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농협과 국립축산과학원도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기술 수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축산 정책과 지도·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식품기업 ‘수도권 판로 확대’ 마케팅 지원

바이오진흥원, 카페디저트페어에서 전통식품·농식품기업 8개사 공동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식품기업의 수도권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카페디저트페어’에 도내 식품기업 8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2026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과 ‘2026

년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내 우수 식품기업의 제품을 수도권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소비자 반응 조사와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신규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행사에는 정드림, 더웬은협동조합, 아리당, 상상, 동선식품, 맑은상회 에프앤비, 고창명산품분주자, 금군양조 등 8개 기업이 참가한다. 참가 기업들은 전통식품을 비롯해

떡류, 쌀과자, 침차, 전통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북 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카페디저트페어는 카페·디저트 산업 관계자와 유통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전문 전시회로, 참가기업들은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고 소비자 및 바이어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외 유통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진출과 신규 거래처 확보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 성과도 기대된다. 바이오진흥원은 공동관의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기업 제품 전시와 함께 시식·시음 행사를 운영하고, 바이어 상담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기업의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비롯한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장은 “2026 카페디저트페어 공동관 운영을 통해 도내 식품기업의 유통망 확대와 신규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속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폭염·풍수해 대비 불안상설시장 현장 점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민, 이하 전북중기청)은 불안상설시장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중기청은 시장 내 폭염 대응체계를 비롯해 배수시설 관리상태와 강풍에 대비한 시설물 고정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상인들의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아울러 불안상설시장이 수산물 중심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실태와 대응 방안도 함께 살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부안 농업 현장 찾아 폭염·가뭄 피해 현장 점검

전북농협이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12일 부안지역 농업 현장을 방문해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생육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작물 생육 저하와 품질 하락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훈 전북농협 본부장을 비롯해 조상완 부안군지부장, 이석훈 계화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은 농업인들에게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의 대응 상황을 살피는 한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한낮 농작업 자제 등 폭염 대응 안전관리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업인과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내 농협에도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과 현장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상근 기자



이승돈 청장, 강릉 고랭지 배추 재배지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이 여름 배추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강원 고랭지 지역의 병해충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막바지 방제에 철저히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고랭지 여름 배추 재배지를 찾아 씨스트션층에 대한 정부 합동 방제 추진 현황과 배추 생육 상태를 점검했다. 씨스트션층은 토양 속에 서식하면서 작물 뿌리에 기생해 영양분을 빼앗는 선충류 병해충이다. 감염된 배추는 생육이 저하되고 배춧속이 제대로 차지 않는 결구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씨스트션층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관리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전국에서 추진되는 씨스트션층 정부 합동 방제 면적은 모두 530ha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원 고랭지 지역인 태백·삼척·정선·영월·강릉·평창 지역의 방제 면적은 518ha로 전체의 약 98%를 차지한다. 강원 고랭지가 우리나라 여름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만큼 씨스트션층 확

산을 막고 안정적인 배추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농경지의 토양을 사전에 검사하고, 선충 발생 정도에 따라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왔다. 배추 모종을 심기 전에는 가스형 약제인 훈증제와 일반 약제인 비훈증제를 활용해 토양을 소독했으며, 선충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는 추가 방제를 실시해 토양 속 선충 밀도를 낮추는 데 집중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 합동 방제 추진 상황과 함께 고랭지 배추의 생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